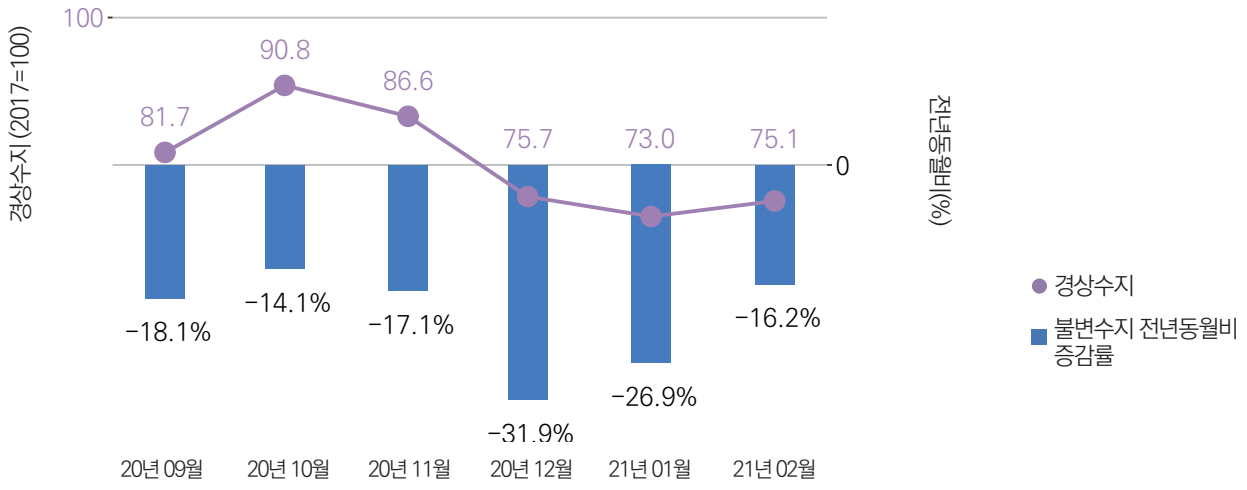
서북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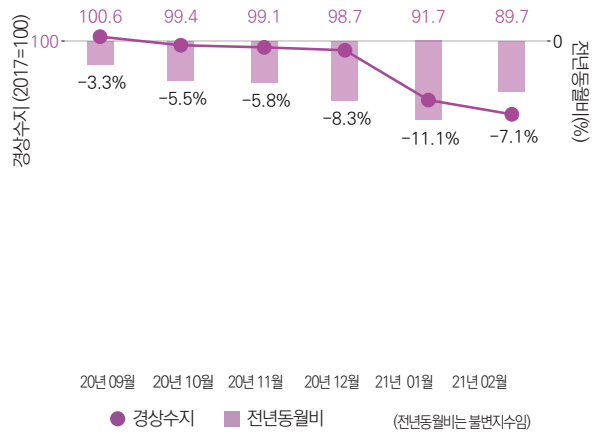
- **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6.2% 하락, 9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심한 소비 부진 지속**
  - 전년동월대비 -16.2% = 소매업의 기여도 -4.1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12.1%p
   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    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
- **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7.1% 하락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28.9% 하락**
  - 서북권은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와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9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가장 심한 소비 부진. 음식료품(18.1%)과 무점포소매(11.7%)를 제외한 세부 업종 대부분의 소비경기가 부진
    · 2월 서북권 소매업은 음식료품, 무점포소매 순으로 소비증가
    · 반면 가전제품·정보통신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가정용품, 기타상품, 의복·섬유·신발,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감소
  - 서북권도 숙박·음식점업 세부 업종 대부분이 전월보다 내림폭이 줄어들었지만 소비경기 부진은 지속
    · 2월 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은 소비증가 업종 없이 주점·커피전문점, 숙박, 음식점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감소

서북권 소비경기지수



서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